



7 단계 : 하나님의 모습을 빚어가는 사람들 : 하나님의 나라와 영성

“제자의 영적 여정”

요 19 : 23 - 27

2010. 11. 10 (수), 11. 13 (토) 강사: 박원호 목사 (주님의교회 담임)

1. 성경에 나타난 ‘어머니 마리아’의 장면들

눅 1 : 26 - 38

눅 1 : 46 - 56

마 1 : 18 - 25

눅 2 : 1 - 7

눅 2 : 8 - 20

눅 2 : 21 - 35

눅 2 : 41 - 50

요 2 : 1 - 12

막 3 : 20 - 22, 31 - 35

요 19 : 23 - 27

2. 마리아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영적 여정

눅 1 : 26 - 38

1) 하나님과 _____을 바꾸기 : 제자의 시작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순간이 있음.

마리아는 결혼 하기 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심.

2) 우리는 대개 _____의 복음(the gospel of prosperity)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이 땅을 위한 아기 예수를 탄생케 하는 것임.

3. 회개의 찬가 : 제자직의 첫 단계

눅 1 : 46 - 56

스캇 펙 : 처음 연애할 때는,

사랑의 힘으로 모든 반대 세력을 물리칠 것이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며 미래는 빛으로 가득할 것.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면서 영광스럽게 찬송함.



M. Scott Peck

하버드 대학교 케이스 웨스
턴 리저브에서 수학했다.
심리상담자로서 미 행정부의
요직을 맡기도 했던 그는
현재 미 코네티컷 주 뉴 밀
퍼트에서 정신과 의사로 개
업해 있으면서 밀퍼트 종합
병원 정신건강 치료센터의
책임자로 재직했다.
2005년 유명을 달리했다.

4. 전도의 열심 : 믿음을 나눔

마 1:18 - 25

마리아는 달려가 요셉에게 이 사실을 말함.

이는 엄청난 용기.

많은 사람들이 이 열정을 삶의 마지막에 회복함.

5.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함

눅 2:1 - 7

아기가 구유에서 태어남.

우리 모두는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금과 장식으로 입히길 원함.

마리아도!

그러나 누가는 단순하게 서술함.

“말이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유일한 방문자는 목자들.

세상에 보여줄 것은 오직 _____ 뿐.

예수의 삶, 예수의 사랑, 예수의 소망, 예수의 비전만 드러나야 함.

6. 제자들의 묵상

눅 2 : 8 - 20

_____들이 크게 무서워함 (눅 2 : 9)

무서워함 (amazement) :

이러한 감정으로 달려가 소식을 전함.

그 다음에 이들은 어디에?

19절 :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무서워함' 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아가야 함.

7.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눅 2 : 21 - 35

성전에서 시므온을 만남.

위로, 구원, 평안, 빛, 계시, 영광과 아울러 _____을 말함(34절, 35절)

우리 제자들에게도!

8. 예수를 잃어버림

눅 2 : 41 - 50

부모 :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대신,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하였습니까?”

마리아는 ‘_____’에서 예수를 찾지 않음.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함.

9. 예수를 전면에 세울 것

요 2 : 1 - 12

가나 혼인잔치 :

대개 결혼 파티는 7일 간 지속됨.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

어머니는 아들에게 포도주를 요구함.

주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심 (십자가 지는 때)

마리아는 이 때가 공생애 시작으로 생각하여 시작하도록 요구함.

10. 관계의 오해 : 제자들의 실망

막 3 : 20 - 22, 31 - 35

사람들로부터 아들에 대한 좋은 소식과 함께 나쁜 소식도 들려옴.

특히 서기관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를 고치고 싶어함.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냐?”라고 말하심으로 크게 상처를 주심.

즉, 어머니로서의 _____을 거부하심.

11. 주되심을 고백하기

요 19 : 23 - 27

마리아는 30여년을 예수와 함께 하면서,

처음엔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로 시작함.

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이어졌다가,

언젠가부터 자신이 예수의 삶을 지시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함.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여,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신 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심.

이 때부터 마리아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요청 받음.

행 1 : 13 - 14절에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이름이 나타남.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